

2017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

[문항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의 작품 속 화자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 묘사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오. (750 ± 50자)

가 주제 통합적 독서란 동일한 화제나 주제를 다루는 다양한 관점이나 형식의 글들을 종합적으로 읽고 그 내용들을 통합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읽기이다. 이러한 독서 활동을 하면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세계를 폭넓은 안목으로 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하나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글을 읽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분석, 비교, 대조 등을 사용하여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나 나는 개울가로 간다. 가물로 하여 너무 빈약한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빠져넘어 양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 않나?

너무 더웁다.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하도록 더웁다. 이렇게 더우니 시냇물인들 서늘한 소리를 내어 보는 재간도 없으리다.

나는 그 물가에 앉는다. 앉아서, 자-무슨 제목으로 나는 사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그러나 물론 아무런 제목도 떠오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 말기로 하자. 그저 한량없이 넓은 초록색 벌판, 지평선, 아무리 변화하여 보았댔자 결국 치열한 곡예의 역(域)을 벗어나지 않는 구름, 이런 것을 건너다본다.

지구 표면적의 백분의 구십구가 이 공포의 초록색이리라. 그렇다면, 지구야말로 너무나 단조무미한 채색이다. 도회에는 초록이 드물다. 나는 처음 여기 표착하였을 때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랐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닳새가 못되어서 이 일망무제의 초록색은 조물주의 물취미와 신경의 조잡성으로 말미암은 무미건조한 지구의 여백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쩔 작정으로 저렇게 퍼러나. 하루 온종일 저 푸른빛은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푸른 것에 백치와 같이 만족하면서 푸른 채로 서 있다.

이윽고 밤이 오면 또 거대한 구렁이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소리도 없이 잔다. 이 무슨 거대한 겸손이냐.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루를 갈기갈기 찢은 것과 다름없는 추악한 색채로 변하는 것이다. 한겨울을 두고 이 황막하고 추악한 벌판을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래도 자살민절하지 않는 농민들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거대한 천치다.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도포된 것이리라. 일할 때는 초록 벌판처럼 더워서 숨이 각각 막히게 싱거울 것이요,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겨우 황원처럼 거칠고 구주레하게 싱거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흥분이 없다. 벌판에 벼락이 떨어져도 그것은 뇌성 끝에 가끔 있는 다반사에 지나지 않는다. 촌동이 범에게 물려 가도 그것은 맹수가 사는 산촌에 가끔 있는 신벌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전선주 하나 없는 벌판에서 그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흥분할 수 있으랴.

팔봉산 등을 넘어 철골 전선주가 늘어섰다. 그러나 그 동선(銅線)은 이 촌락에 엮서 한 장을 내려 뜨리지 않고 섰는 채다. 동선으로는 전류도 통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방이 아직도 송명(松明)으로 어둡침침한 이상 그 전선주들은 이 마을 동구에 늘어선 포플러 나무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들에게 희망은 있던가? 가을에 곡식이 익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희망은 아니다. 본능이다.

내일. 내일도 오늘 하던 계속의 일을 해야지 이 끝없는 권태의 내일은 왜 이렇게 끝없이 있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른다. 간혹 그런 의혹이 전광과 같이 그들의 흥리를 스치는 일이 있어도 다음 순간 하루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잠이 오고 만다. 그러니 농민은 참 불행하도다. 그럼 이 흉악한 권태를 자각할 줄 아는 나는 얼마나 행복된가.

— 이상, <권태>, 『고등학교 문학』 —

다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에 금린어 안주로다
이몸이 한가하움도 역군은이샷다

*시냇가에서 막걸리를 마심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에 일이 없다
유신한 강물결은 보내나니 바람이라
이몸이 서늘하움도 역군은이샷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 두고
이몸이 소일하움도 역군은이샷다

*작은 배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히 남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몸이 춥지 아니하움도 역군은이샷다

—맹사성, <강호사시가>, 『고등학교 문학』—

[문항 2]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나**의 제도를 비판해 보고,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과** 같이 판시한 이유를 **다**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시오. (750 ± 50자)

가 일반적으로 정의는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교정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 또는 보상적 정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개인 간 상호작용을 할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해를 끼친 당사자가 그 만큼 보상해 주어야 정의롭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준 경우 당사자가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하는 등 범죄에 대한 대응이 공정할 때 교정적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이야기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1996년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이래, 여성의 고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추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 oo그룹은 대졸 신입 사원의 30% 이상을 여성 인력으로 뽑는다는 '여성 인력 할당제'를 2002년에 업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여성 고용 할당제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 인력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채용이나 승진에서 여성을 적극 우대하는 조치이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1999년 "여성 고용 할당제는 잠정적 우대 조치의 하나로서,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해 주려는 조치이므로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밝힌 바 있다.

— 『고등학교 사회』—

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또는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결정된 사실이자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매킨타이어, <덕의 상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